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 조중신문

혁명사상만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101호 [루체 제25610호] 주제 106 (2017)년 4월 11일 (화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설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쟁쟁한 영광을 끌어온 위업이다.

오늘 우리나라 강산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대불이에 수령복, 경군복을 누리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차지하고 있다. 그 어디서나 봄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고 있다.

천만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린 후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그 시기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놓이 모신 5돐을 성실히 기념하고 있다.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전면길에서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기세드높이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총력전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는 경지적인 시기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놓이 모신 5돐을 성실히 기념하고 있다.

주제 101(2012)년 4월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놓이 모신 것은 우리 당의 강령발전과 김일성·김정일주의 혁명조선의 강성번영을 위한 두정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정치적사변이었으며 혁명적경사였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빛나는 예지와 청탁적인 사상의 풍랑으로 우리 당과 조국이 나아갈 백승의 길로를 환히 밝혀주신 것은 민족사에 영원불멸할 영적이다.

우리 당은 우리 당과 조국이 나아갈 백승의 길로를 환히 밝혀주신 것은 민족의 운명과 미래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을 지니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운 주체혁명위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우리 당과 조국의 운명과 미래를 함께 보고 있으며 당의 명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갈 불라는 결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후에 당이 승리의 한길로에 이르렀을 때 주체혁명위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야 합니다.』

지난 5년은 우리 당과 조국에 있어서 형언할수 없는 시련과 난관이 겹쌓인 엄혹한 시기였다. 민족의 대국상을 기회로 우리 사회주의의 길을 기록하고자 노력하는 원수님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을 끌어모으며 세계가 조선을 더욱 압박하였으며 세계가 조선에 대한 무관심과 협박을 더해졌다. 지난 5년간의 모든 날과 달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위하여 헌신한 원수님의 정신을 빛나게 실현하는 데에 대한 희망을 더해졌다.

주체혁명위업승리의 중대한 역사적시기에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단적으로 중시하고 높이 모신 것은 우리 당과 조국,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더욱 영광이었으며 천안군민이 당의 명도와 함께 혁명의 힘을 펼쳤던 것이다. 지난 5년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신을 빛나게 실현하는 데에 대한 희망을 더해졌다. 지난 5년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신을 빛나게 실현하는 데에 대한 희망을 더해졌다. 지난 5년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신을 빛나게 실현하는 데에 대한 희망을 더해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다.

『전국의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들에 악기들을 선물로 보내주시였다.』

전반적 12년제의 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새 세대들의 품과 희망이 더욱 활짝 꽂여나고 있는 나라이 어머니당의 후세사람이 꽂여나고 있다.

후대들을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의 제일 중대사로 내세우고 그들을 위해 서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국의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들에 악기를 선물로 보내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밝고

평화로운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해 가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힘찬 동을으로 춤의 도록 하시기 위해 전국의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들을 세우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밝고

평화로운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해 가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힘찬 동을으로 춤의 도록 하시기 위해 전국의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들을 세우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밝고

평화로운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해 가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힘찬 동을으로 춤의 도록 하시기 위해 전국의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들을 세우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밝고

평화로운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해 가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힘찬 동을으로 춤의 도록 하시기 위해 전국의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들을 세우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밝고

평화로운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해 가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힘찬 동을으로 춤의 도록 하시기 위해 전국의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들을 세우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밝고

평화로운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해 가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힘찬 동을으로 춤의 도록 하시기 위해 전국의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들을 세우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밝고

평화로운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해 가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힘찬 동을으로 춤의 도록 하시기 위해 전국의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들을 세우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밝고

평화로운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해 가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힘찬 동을으로 춤의 도록 하시기 위해 전국의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들을 세우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밝고

평화로운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해 가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힘찬 동을으로 춤의 도록 하시기 위해 전국의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들을 세우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밝고

평화로운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해 가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힘찬 동을으로 춤의 도록 하시기 위해 전국의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들을 세우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밝고

평화로운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해 가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힘찬 동을으로 춤의 도록 하시기 위해 전국의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들을 세우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밝고

평화로운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해 가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힘찬 동을으로 춤의 도록 하시기 위해 전국의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들을 세우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밝고

평화로운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해 가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힘찬 동을으로 춤의 도록 하시기 위해 전국의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들을 세우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밝고

평화로운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해 가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힘찬 동을으로 춤의 도록 하시기 위해 전국의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들을 세우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밝고

평화로운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해 가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힘찬 동을으로 춤의 도록 하시기 위해 전국의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들을 세우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밝고

평화로운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해 가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힘찬 동을으로 춤의 도록 하시기 위해 전국의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들을 세우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밝고

평화로운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해 가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힘찬 동을으로 춤의 도록 하시기 위해 전국의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들을 세우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밝고

평화로운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해 가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힘찬 동을으로 춤의 도록 하시기 위해 전국의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들을 세우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밝고

평화로운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해 가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힘찬 동을으로 춤의 도록 하시기 위해 전국의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들을 세우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밝고

평화로운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해 가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힘찬 동을으로 춤의 도록 하시기 위해 전국의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들을 세우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밝고

평화로운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해 가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힘찬 동을으로 춤의 도록 하시기 위해 전국의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들을 세우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밝고

평화로운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해 가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힘찬 동을으로 춤의 도록 하시기 위해 전국의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들을 세우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밝고

평화로운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해 가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힘찬 동을으로 춤의 도록 하시기 위해 전국의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들을 세우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밝고

평화로운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해 가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힘찬 동을으로 춤의 도록 하시기 위해 전국의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들을 세우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밝고

평화로운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해 가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힘찬 동을으로 춤의 도록 하시기 위해 전국의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들을 세우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밝고

평화로운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해 가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힘찬 동을으로 춤의 도록 하시기 위해 전국의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들을 세우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밝고

평화로운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해 가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힘찬 동을으로 춤의 도록 하시기 위해 전국의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들을 세우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밝고

평화로운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해 가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힘찬 동을으로 춤의 도록 하시기 위해 전국의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들을 세우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밝고

평화로운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해 가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힘찬 동을으로 춤의 도록 하시기 위해 전국의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들을 세우는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이들의 밝고

평화로운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최후승리를

# 백두산총대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강대성을 만방에 떨치자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의 예식 진행



【평양】 4월 10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로동당의 선군행도파와 백두산총대를 역세계 들어쥐고 동방의 해강국, 군사대국의 절승을 성을 파시하며 태양의 위엄을 굳건히 담아나가고 있는 천만장병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의 탄생 105돐을 뜻깊이 맞이하고 있다.

전체 인민장병들은 대를 이어 수령복, 최고사령관복을 누리는 크나큰 궁지와 차부심에 넘쳐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同志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내 나라, 내 조국을 무적의 굳력을 수호하며 온 세상에 빛내여갈 철석의 의지를 가슴 불태우고 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의 탄생 105돐을 민족화된 평도자 김정일同志의 탄생 105돐과 함께 기쁜 행진曲을 편성하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의 예식이 10일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전개되었다.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경철의 명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同志에게 대한민국의 국무위원회 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同志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최명우同志, 인민무역상인 육군대장 박영식同志과 함께 참가하였다.

금수산태양궁전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의 태양상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同志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광장에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태양상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同志의 태양상을 우러러 전제 참가자들은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김일성창군의 노래》, 《김정일창군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가운데 21발의 폐포가 발사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 하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同志을 향해 기쁜 행진曲을 편성하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이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同志의 탄생 105돐을 축하하였다.

주석단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이 세워져 있었으며 그 광열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에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同志의 탄생 105돐을 축하하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의 예식이 10일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전개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同志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최명우同志, 인민무역상인 육군대장 박영식同志과 함께 참가하였다.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의 노래주악이 울려터지는 속에 조선인민군군악단의 예식이 있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同志의 탄생 105돐은 조국정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엔설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의 탄생 105돐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同志의 탄생 21돐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달려가 보시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同志의 탄생 105돐을 축하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 하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同志을 향해 기쁜 행진曲을 편성하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이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同志의 탄생 105돐을 축하하였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同志에게 제시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생이 있고 조국혁명의 승리가 있다는 절대 불변의 진리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하늘땅이 열백번 위집하고 그 어떤 천지풍파가 불어와도 주호의 혼 블림없이 최고사령관同志을 글에 밀고 따르며 천집안겁의 천연요새가 되어 위대한 김정은同志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목숨으로 사수하겠습니다.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굳건히 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당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하시어 한세대에 가장 포악한 두 제국주의를 태우는 군사적 기적을 창조하시였으며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同志께서 선군혁명의 험난한 길을 해쳐오시면서 사회주의 수호전, 만미대결전에서 떤 철전승을 이룩하시고 끌없는 애국현신으로 후손만대의 무상영광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신 데 대하여 그는 말하였다.

당의 혼련혁령 5대방침을 중심고리, 종자로 끌어쥐고 백두산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올해를 또다시 혼연의 해, 싸움준비 활성의 해로 정해 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同志의 숭고한 의도를 담들어 훈련하고 또 훈련하여 김일성-김정일同志 전율과 영웅적전투정신, 원색한 실전능력을 소유한 일당백의 반도싸움군, 백두산호랑이들로 얹세게 준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싸움준비와 군인생활에서 혁명색전환을 일으키며 조국의 경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주요전구들마다에서 세상을 놀라우는 영웅신화, 새로운 기적들을 편이 쟁조함으로써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돌격대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펼쳐겠습니다.

당군건설의 종로선이며 군력강화의 만능의 보검인 오종흡·7현대청호·위윤봉과 군위부대운동장을 더욱 훌륭하게 벌리 모든 부대들을 당중앙을 경시옹위하는 항일의 7현대, 철화의 군위부대들로 만들며 군사정치사업에서 끝없이 절단적 혁신을 일으켜나가겠습니다.

날강도 미제가 우리의 정정당당한 혁무역강화조치를 걸고면서 남조선과 그 주변에 악행 높은 혁전자사람들과 「특수전」 병력을 충투입하여 혁전쟁도발에 미쳐 날뛰고 있지만 백두산장들의 혁경이내 장성 강화된 일당백혁명무력을 절대로 놀라울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주체적인 전쟁관찰과 투철한 주역관을 떠속깊이 조이박고 미제와 남조선과 베티적제당의 준동을 날카롭게 주시하며 만악 능들이 끝끝내 침략전쟁의 불길을 터뜨

리며 한다면 강력한 혁선체계와 먼개같은 풍격작전으로 침략의 무리를 훈적도 없이 쓸어버리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同志를 높이 모신 조국통일열병광장에 보무당당히 들어설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태양기가 전두에 휘날리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同志의 타월하고 세현원 병도가 있기에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同志 강군은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빽전택승할 것입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同志의 뿌리에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조국의 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일당계오기 위하여 훌륭한 신심트노이 총총격함으로써 선군혁명의 주역군, 제기기술로서의 스스러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겠다는것을 태양의 성지 금수산태양궁전에서 다시 한번 굳게 세웁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同志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자!』, 『위대한 김정은同志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등 신념의 구호들을 우렁차게 외쳤다.

이어 광장에서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과 각급 군사학교, 혁명학원 학생들의 분렬행진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同志의 초상기와 함께 백두산장들의 깊이에 훈련장을 받으며 입장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의 초상기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同志의 초상기를 우러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同志을 향해 기쁜 행진曲을 뜯어내며 훈련장을 받았습니다.

영웅적조선인민군의 강대성의 상징이며 김일성同志, 김정일同志의 승리의 기치인 최고사령관同志를 향해 기쁜 행진곡을 드높이 전진하는 대오마디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 주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끝나지 않아갈 백두산혁명강군의 철의 의지가 세차게 펼쳐졌다.

예식은 『김정은창군 목숨으로 사수하자』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백두의 대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同志를 높이 모시고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이하는 인민군장병들의 회회와 격정의 분출인 양광에 한 경축의 축포성이 태양성지의 하늘가로 짧없이 메아리쳐졌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의 예식은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주체혁명위업 완성의 역년드높지 않는 초석을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및내이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同志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태양조선의 천만년미래를 백두산총대로 빛내여나갈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푸렷이 과시하였다.



## 김일성상계관도서 『인민들속에서』를 펼치며 (2)

# 수령님은 인민과 함께, 인민은 수령님과 함께

흐르는 세월은 끝없이 바뀌우고 있다.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이 땅의 인민이라면 누구나 도서 『인민들속에서』를 익숙하고 있으며 각종 생활의 진리도 여기에서 찾고 있다.

도서에는 한평생 인민과 함께 계신 우리 수령님의 모습이 감동깊은 이야깃로 정하고 있으며 수령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럽없는 혼엄파 행복, 영광을 받아온다며 성장한 인민이 거대한 군상을 이루고 있다.

100권을 넘어서 도서 『인민들속에서』의 종적 주제를 구하여 든다면 그것은 『수령님은 인민과 함께, 인민은 수령님과 함께』일 것이다.

인류 역사에는 걸출한 명인들과 정치가들을 희역하는 문인세사들의 저서들이 많지만 우리의 『인민들속에서』는 같은 경영한 인민들이 소박한 친절로 역사의 진실과 진정을 담아 위대한 수령의 한평생을 청중한 전인적인 도서는 없다.

위대한 생애의 1994년 7월에 우리 수령님께서 낙날기 표지가 역사의 자작처럼 떠오른다.

『나는 지금까지 인민을 빙고 인민을 위하여 둑생하였으며 인민을 속에서 살았습니다. 나의 한생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뛰쳐온 학생이었으며 인민들과 함께 뛰쳐온 학생이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 인민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만이 아니라 이 땅의 후손에게 걸이 전하는 인민의 고귀한 추억을 『인민들속에서』의 갈피들은 펼쳐여준다.

『꼭 우리 힘으로 북구해 봄시다』, 『용체의 소박한 의견을 들으시고도』, 『풀소금밥을 찾으시어』, 『모스없이 우리 집에 찾아오시어』, 『잊지 못할 추억을 더듬어』, 『수령님은 언제나 인민들에게 계시았습니다』…

한번지 번지면 우리 수령님 주신 땅에 불려온 힘에 가련한 해방조선의 전야가 『밥값이 노래』의 흥겨운 선율 속에 어려운 또 한계지를 벗어던졌다. 우리 수령님 대체주인 품을 따라가고 격동의 영웅시대의 청공을 날뛰던 청소년 세 강소, 기계 공장이며 화학공기기지의 백전 승길이 뚫려온다. 또 다른 한편에 험난한 힘 있는 목소리가 울리였다.

수령님,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답이 기쁘시여 은 공장이 한 해지도록 웃으면서 대단하게 만들 어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고무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말씀을

모습이 회상되고 있다.

주체 47(1958)년 6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역사의 망원경을 찾으셨다.

기양관과 어진관문개를 비롯한 크고 작은 수퍼히피들이 진행되고 천리마를 타고나가야 합니다. 천리마의 대고조를 한번 더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수령의 호소파와 맨손으로 수레대

의 양수기와 만들어낸 락원로동계급

은 그에 굽착기로 만들었다.

이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믿고 의지하신 것은 이웃나라의 그 어떤 도움이 아니라 오직 인민의 힘, 우리 품종의 자랑이었다.

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직장들에 놀리시어 교통자들과 담화를 나누신 후 공장입구를

모시려고 하는 지배인실이 아니라 『로동자동물들이 일하다 쉬워 쉬운 일』에 중대한 일이 그이를

거친원회의 활동에 향해를

를 구하였다.

더 중대한 일이 그이를 기다리고 있는 사실에 장내에는 술렁거리였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보다 더 중대한 일은 무엇일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얼른 가볼데

가 있는데 회의는 갔다와서 계속하

겠다고 하시었지만 몇 시간 후에 야

돌아오셨다.

락원로동계급이 만들었다는 양수기

와 굽착기 때문이었다. 양수기와 굽착

기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뒤로

미풀만을 수령님의 심혼을 사로잡은

기운을 한껏 물들이고 그날은 떨

어 서신에 기울어 빙거미가 진 미망에 있는

한편으로 일상에 있으셨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굽착기 문제

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굽착기 100대가 있어야 하겠는데 아무리 도입하여

수도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울수는 없고 우리 자체의 힘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들이 만들기만 하면 당중앙

위원회가 안락과 외와하는 굽착기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것은 인민에게 하시는 우리

수령님의 호소였다.

우리 수령님은 번개가 있고 우뢰가 있었다.

혁명이 줄어든 역사의 언덕을 넘어야 할 때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인민들 속에 들어가시었고 그들에게 나рав의 사정을 떠지도 보태지 않고 그대로 일어나 주시면서 방도를 제시하였고 인민에게 호소하였다.

인민에게 하시는 복은 호소, 기에는 언제나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인민의 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었다.

우리 수령님은 제일 잘 알고 그이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나는 그에게 끌려온 힘으로

우리 수령님은 제일 잘 알고 그이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나는 그에게 끌려온 힘으로

우리 수령님은 제일 잘 알고 그이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나는 그에게 끌려온 힘으로

우리 수령님은 제일 잘 알고 그이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나는 그에게 끌려온 힘으로

우리 수령님은 제일 잘 알고 그이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나는 그에게 끌려온 힘으로

우리 수령님은 제일 잘 알고 그이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나는 그에게 끌려온 힘으로

우리 수령님은 제일 잘 알고 그이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나는 그에게 끌려온 힘으로

우리 수령님은 제일 잘 알고 그이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나는 그에게 끌려온 힘으로

우리 수령님은 제일 잘 알고 그이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나는 그에게 끌려온 힘으로

우리 수령님은 제일 잘 알고 그이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나는 그에게 끌려온 힘으로

우리 수령님은 제일 잘 알고 그이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나는 그에게 끌려온 힘으로

우리 수령님은 제일 잘 알고 그이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나는 그에게 끌려온 힘으로

우리 수령님은 제일 잘 알고 그이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나는 그에게 끌려온 힘으로

우리 수령님은 제일 잘 알고 그이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나는 그에게 끌려온 힘으로

우리 수령님은 제일 잘 알고 그이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나는 그에게 끌려온 힘으로

우리 수령님은 제일 잘 알고 그이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나는 그에게 끌려온 힘으로

우리 수령님은 제일 잘 알고 그이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나는 그에게 끌려온 힘으로

우리 수령님은 제일 잘 알고 그이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나는 그에게 끌려온 힘으로

우리 수령님은 제일 잘 알고 그이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나는 그에게 끌려온 힘으로

우리 수령님은 제일 잘 알고 그이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나는 그에게 끌려온 힘으로

우리 수령님은 제일 잘 알고 그이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나는 그에게 끌려온 힘으로

우리 수령님은 제일 잘 알고 그이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나는 그에게 끌려온 힘으로

우리 수령님은 제일 잘 알고 그이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나는 그에게 끌려온 힘으로

우리 수령님은 제일 잘 알고 그이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나는 그에게 끌려온 힘으로

우리 수령님은 제일 잘 알고 그이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나는 그에게 끌려온 힘으로

우리 수령님은 제일 잘 알고 그이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나는 그에게 끌려온 힘으로

우리 수령님은 제일 잘 알고 그이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나는 그에게 끌려온 힘으로

우리 수령님은 제일 잘 알고 그이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나는 그에게 끌려온 힘으로

우리 수령님은 제일 잘 알고 그이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나는 그에게 끌려온 힘으로

우리 수령님은 제일 잘 알고 그이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나는 그에게 끌려온 힘으로

우리 수령님은 제일 잘 알고 그이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나는 그에게 끌려온 힘으로

우리 수령님은 제일 잘 알고 그이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나는 그에게 끌려온 힘으로

우리 수령님은 제일 잘 알고 그이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나는 그에게 끌려온 힘으로

우리 수령님은 제일 잘 알고 그이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나는 그에게 끌려온 힘으로

우리 수령님은 제일 잘 알고 그이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나는 그에게 끌려온 힘으로

우리 수령님은 제일 잘 알고 그이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나는 그에게 끌려온 힘으로

우리 수령님은 제일 잘 알고 그이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나는 그에게 끌려온 힘으로

우리 수령님은 제일 잘 알고 그이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나는 그에게 끌려온 힘으로

우리 수령님은 제일 잘 알고 그이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나는 그에게 끌려온 힘으로

우리 수령님은 제일 잘 알고 그이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나는 그에게 끌려온 힘으로

우리 수령님은 제일 잘 알고 그이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나는 그에게 끌려온 힘으로

우리 수령님은 제일 잘 알고 그이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나는 그에게 끌려온 힘으로

우리 수령님은 제일 잘 알고 그이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나는 그에게 끌려온 힘으로

우리 수령님은 제일 잘 알고 그이의 마음을 세밀히 살피고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에 즈음하여

## 중앙사진전람회 개막

## 태양조선의 하늘가에 끝없이 울려퍼지는 흠토의 송가

### 제5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개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 경축 중앙사진전람회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가 개막되었다.

태양의 미소를 지으시며 세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성사진 전시회장에 정중히 모셔져 있다.

전람회장에는 태워 한 사상과 병도, 고마한 떡당으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에서 업적을 쟁여온

쌓아올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기록한 혁명생애를 담은 사진

문화들이 어리여 있다.

《장집부녀사의 가정을 찾으시여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봉사에 국무부사 려인모를 만나 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비롯한 사진문화들은 혁명전사들을 두루히 아끼고 사랑

하는 위대한 수령님의 솔고한 혁명적 의리의 세계를 가슴뜨겁게 전해고 있다.

인민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기록한

병도의 자욱을 되새겨보게 하는 《창

왕원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태양의 빛과 함께

기념관을 찾으시는 《만경대물들에 놀아온 부여군, 시암의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박춘남문화상은 개막연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함께 계시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세로 만든 저하진동차의 시운전을

지도하시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뜻깊은 민족

최대의 경시의 날이며 인류동포의 명

절이라고 강조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뜻깊은 민족

최대의 경시의 날이며 인류동포의 명

절이라고 강조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뜻깊은 민족

최대의 경시의 날이며 인류동포의 명

절이라고 강조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뜻깊은 민족

최대의 경시의 날이며 인류동포의 명

절이라고 강조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뜻깊은 민족

최대의 경시의 날이며 인류동포의 명

절이라고 강조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자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뜻깊은 민족

최대의 경시의 날이며 인류동포의 명

절이라고 강조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자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뜻깊은 민족

최대의 경시의 날이며 인류동포의 명

절이라고 강조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자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뜻깊은 민족

최대의 경시의 날이며 인류동포의 명

절이라고 강조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자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뜻깊은 민족

최대의 경시의 날이며 인류동포의 명

절이라고 강조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자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뜻깊은 민족

최대의 경시의 날이며 인류동포의 명

절이라고 강조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자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뜻깊은 민족

최대의 경시의 날이며 인류동포의 명

절이라고 강조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자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뜻깊은 민족

최대의 경시의 날이며 인류동포의 명

절이라고 강조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자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뜻깊은 민족

최대의 경시의 날이며 인류동포의 명

절이라고 강조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자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뜻깊은 민족

최대의 경시의 날이며 인류동포의 명

절이라고 강조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자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뜻깊은 민족

최대의 경시의 날이며 인류동포의 명

절이라고 강조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자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뜻깊은 민족

최대의 경시의 날이며 인류동포의 명

절이라고 강조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자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뜻깊은 민족

최대의 경시의 날이며 인류동포의 명

절이라고 강조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 우리 나라 설계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백두산건축연구원

우리는 지금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찾으시었던 백두산건축 연구원 현관홀에 서 있다.

단 몇몇 사이에 흥미로운 행로를 간회깊이 회고하시었다.

나라의 건축설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주체 71(1982)년 7월 백두산건축연구원을 창립해 주시고 어려운 현지지도하신 위대한 장군님.

주체 건축을 창조하고 발전시키자면 당의 건축사상과 리론, 방법에 철저히 의거하고 현대건축창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연구한데 기초하여 대상설계를 가장 원만히 보장할 수 있는 힘 있고 권위 있는 설계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을 천리에 안의 예지로 내다보신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백두산건축연구원은 충고한 영성이 어떠한 가슴이 드립니다.

정직 오늘과 같이 백두산건축연구원이 당시의 건설의 대변영 기를 열어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엑 구원을 자신의 창작실이라고 불러주시며 첫 걸음을 뚫어 주는 어머니와 같이 손잡아 이끌어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령한 명도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백두산건축연구원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건축부문에 남기신 유산입니다.』

지난 3월 10일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건축 창발전을 위하여 백두산건축연구원과 함께 한 장군님의 명도사가 용족되어 있는 귀중한 사적자료들과 사적물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백두산건축연

구원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행로를

간회깊이 회고하시었다.

나라의 건축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주체 71(1982)

년 7월 백두산건축연구원을 창립해 주시고 어려운 현지지도하신 위대한 장군님.

주체 건축을 창조하고 발전시키자면 당의 건축사상과 리론, 방법에 철저히 의거하고 현대건축창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연구한데 기초하여 대

상설계를 가장 원만히 보장할 수 있는 힘 있고 권위 있는 설계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을 천리에 안의 예지로 내다보신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백두산건축연

구원이 있었다.

연구원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자신의 건설구상을 설계도면에 담아 실현하는 주체건축의 창작실을 되게 하여야 한다고 그 설계와 본사명을 가장 원만히 보장할 수 있는 힘 있고 권위 있는 설계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을 천리에 안의 예지로 내다보신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백두산건축연

구원이 당시에는 금수산

기념공장(당시)에 넓은 광장이 형

성되는데 맞게 주체단을 새로 건립

하기 위한 협성설계와 대회의 실을

무기력기 위한 설계, 출정문과 출몰문

문을 새로 만들면서 원활하게

동을 회상의 수준에서 완성함으로

써 당과 수령의 창작실로서의 사명

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창건 50돐을 맞으며 당창건기념

당을 건립하기 위하여 어려 설계

작품들에 만 들어올린 형성안장을

보아주실 때였다.

여러 형상인들은 기념탑의 기본

주제를 이루는 우리 당을 상징하는

마치와 낫과 끓을 표지시킨 당마크

를 그대로 램에서 올려세운 형식의

도식적인 형태로 벽에 네가시를

하였다. 그날 그이께서는 당마크를

그대로가 아니라 마치와 낫과 끓을

궁금지를 가슴깊이 간

못을 일일이 돌아보시며 건축연구 사업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리고 철학 백두산건축연구원이 라고 이름을 지어 주시고 앞으로 백두산건축연

구원에서는 대기념비적 건축물들에 대한 설계와 건축과학, 환경위생을 연구함에 대 한 기본임무까지 환히

각각 수직으로 세워 놓신으로 하고 그것을 원통형의 빠르게 묶어서 형성 한 백두산건축연구원의 안에서 새롭고 독특한 창상을 조작하시고 3안으로 더 세련시켜보라고, 3안

이 마음에 든다는 선원을 세워주시었다. 그 후 완공된 당창건기념탑을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창건기념탑이 아주 멋있었다고, 당창

기념탑을 탐방하면서 형상화 지 않고 마치와 낫과 끓을 문제 세워 놓고 풍자로 형상화하니 형식도 똑똑하고 보기에도 하시면서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주제 9(2009)년 9월 30일, 또다시 연구원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창건기념

타워를 축하하고 함께 기념

행사를 벌였다고 하시면서

자신 경애하는 원수님,

지난 3월에 또다시 원수님께서는 백두산건축연구원의 일꾼들과 설계가, 건축가, 연구사들이 연구원을 찾았을 때 당시에 철학적인 실천들을 갖추어 주시었다. 모 두 좋아한다는데 자신에서도 기쁘

다고, 백두산건축연구원은 우리

나라 설계기관들의 본보기, 표준

직하고 설계도면에 찍는 점 하나, 불어 걸이 및 날 전죽물, 주제성, 민족성, 특장성, 현대성이 철저히 구현된 건축물을 창조하기 위한 두

정을 험하게 벌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시에 철학적인 실천들을 보내주겠다는 사랑의 약속도 하여

구원을 찾으시여로동당시대와 더불어 걸이 및 날 전죽물, 주제성, 민족성, 특장성, 현대성이 철저히 구현된 건축물을 창조하기 위한 두 정을 험하게 벌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시에 철학적인 실천들을 보내주겠다는 사랑의 약속도 하여

구원을 찾으시여로동당시대와 더불어 걸이 및 날 전죽물, 주제성, 민족성, 특장성, 현대성이 철저히 구현된 건축물을 창조하기 위한 두 정을 험하게 벌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시에 철학적인 실천들을 보내주겠다는 사랑의 약속도 하여

구원을 찾으시여로동당시대와 더불어 걸이 및 날 전죽물, 주제성, 민족성, 특장성, 현대성이 철저히 구현된 건축물을 창조하기 위한 두 정을 험하게 벌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시에 철학적인 실천들을 보내주겠다는 사랑의 약속도 하여

구원을 찾으시여로동당시대와 더불어 걸이 및 날 전죽물, 주제성, 민족성, 특장성, 현대성이 철저히 구현된 건축물을 창조하기 위한 두 정을 험하게 벌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시에 철학적인 실천들을 보내주겠다는 사랑의 약속도 하여

구원을 찾으시여로동당시대와 더불어 걸이 및 날 전죽물, 주제성, 민족성, 특장성, 현대성이 철저히 구현된 건축물을 창조하기 위한 두 정을 험하게 벌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시에 철학적인 실천들을 보내주겠다는 사랑의 약속도 하여

구원을 찾으시여로동당시대와 더불어 걸이 및 날 전죽물, 주제성, 민족성, 특장성, 현대성이 철저히 구현된 건축물을 창조하기 위한 두 정을 험하게 벌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시에 철학적인 실천들을 보내주겠다는 사랑의 약속도 하여

구원을 찾으시여로동당시대와 더불어 걸이 및 날 전죽물, 주제성, 민족성, 특장성, 현대성이 철저히 구현된 건축물을 창조하기 위한 두 정을 험하게 벌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시에 철학적인 실천들을 보내주겠다는 사랑의 약속도 하여

구원을 찾으시여로동당시대와 더불어 걸이 및 날 전죽물, 주제성, 민족성, 특장성, 현대성이 철저히 구현된 건축물을 창조하기 위한 두 정을 험하게 벌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시에 철학적인 실천들을 보내주겠다는 사랑의 약속도 하여

구원을 찾으시여로동당시대와 더불어 걸이 및 날 전죽물, 주제성, 민족성, 특장성, 현대성이 철저히 구현된 건축물을 창조하기 위한 두 정을 험하게 벌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시에 철학적인 실천들을 보내주겠다는 사랑의 약속도 하여

구원을 찾으시여로동당시대와 더불어 걸이 및 날 전죽물, 주제성, 민족성, 특장성, 현대성이 철저히 구현된 건축물을 창조하기 위한 두 정을 험하게 벌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시에 철학적인 실천들을 보내주겠다는 사랑의 약속도 하여

구원을 찾으시여로동당시대와 더불어 걸이 및 날 전죽물, 주제성, 민족성, 특장성, 현대성이 철저히 구현된 건축물을 창조하기 위한 두 정을 험하게 벌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시에 철학적인 실천들을 보내주겠다는 사랑의 약속도 하여

구원을 찾으시여로동당시대와 더불어 걸이 및 날 전죽물, 주제성, 민족성, 특장성, 현대성이 철저히 구현된 건축물을 창조하기 위한 두 정을 험하게 벌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시에 철학적인 실천들을 보내주겠다는 사랑의 약속도 하여

구원을 찾으시여로동당시대와 더불어 걸이 및 날 전죽물, 주제성, 민족성, 특장성, 현대성이 철저히 구현된 건축물을 창조하기 위한 두 정을 험하게 벌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시에 철학적인 실천들을 보내주겠다는 사랑의 약속도 하여

구원을 찾으시여로동당시대와 더불어 걸이 및 날 전죽물, 주제성, 민족성, 특장성, 현대성이 철저히 구현된 건축물을 창조하기 위한 두 정을 험하게 벌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시에 철학적인 실천들을 보내주겠다는 사랑의 약속도 하여

구원을 찾으시여로동당시대와 더불어 걸이 및 날 전죽물, 주제성, 민족성, 특장성, 현대성이 철저히 구현된 건축물을 창조하기 위한 두 정을 험하게 벌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시에 철학적인 실천들을 보내주겠다는 사랑의 약속도 하여

구원을 찾으시여로동당시대와 더불어 걸이 및 날 전죽물, 주제성, 민족성, 특장성, 현대성이 철저히 구현된 건축물을 창조하기 위한 두 정을 험하게 벌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시에 철학적인 실천들을 보내주겠다는 사랑의 약속도 하여

구원을 찾으시여로동당시대와 더불어 걸이 및 날 전죽물, 주제성, 민족성, 특장성, 현대성이 철저히 구현된 건축물을 창조하기 위한 두 정을 험하게 벌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시에 철학적인 실천들을 보내주겠다는 사랑의 약속도 하여

구원을 찾으시여로동당시대와 더불어 걸이 및 날 전죽물, 주제성, 민족성, 특장성, 현대성이 철저히 구현된 건축물을 창조하기 위한 두 정을 험하게 벌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시에 철학적인 실천들을 보내주겠다는 사랑의 약속도 하여

구원을 찾으시여로동당시대와 더불어 걸이 및 날 전죽물, 주제성, 민족성, 특장성, 현대성이 철저히 구현된 건축물을 창조하기 위한 두 정을 험하게 벌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시에 철학적인 실천들을 보내주겠다는 사랑의 약속도 하여

구원을 찾으시여로동당시대와 더불어 걸이 및 날 전죽물, 주제성, 민족성, 특장성, 현대성이 철저히 구현된 건축물을 창조하기 위한 두 정을 험하게 벌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시에 철학적인 실천들을 보내주겠다는 사랑의 약속도 하여

구원을 찾으시여로동당시대와 더불어 걸이 및 날 전죽물, 주제성, 민족성, 특장성, 현대성이 철저히 구현된 건축물을 창조하기 위한 두 정을 험하게 벌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시에 철학적인 실천들을 보내주겠다는 사랑의 약속도 하여

구원을 찾으시여로동당시대와 더불어 걸이 및 날 전죽물, 주제성, 민족성, 특장성, 현대성이 철저히 구현된 건축물을 창조하기 위한 두 정을 험하게 벌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시에 철학적인 실천들을 보내주겠다는 사랑의 약속도 하여

구원을 찾으시여로동당시대와 더불어 걸이 및 날 전죽물, 주제성, 민족성, 특장성, 현대성이 철저히 구현된 건축물을 창조하기 위한 두 정을 험하게 벌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시에 철학적인 실천들을 보내주겠다는 사랑의 약속도 하여

구원을 찾으시여로동당시대와 더불어 걸이 및 날 전죽물, 주제성, 민족성, 특장성, 현대성이 철저히 구현된 건축물을 창조하기 위한 두 정을 험하게 벌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시에 철학적인 실천들을 보내주겠다는 사랑의 약속도 하여

구원을 찾으시여로동당시대와 더불어 걸이 및 날 전죽물, 주제성, 민족성, 특장성, 현대성이 철저히 구현된 건축물을 창조하기 위한 두 정을 험하게 벌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시에 철학적인 실천들을 보내주겠다는 사랑의 약속도 하여

구원을 찾으시여로동당시대와 더불어 걸이 및 날 전죽물, 주제성, 민족성, 특장성, 현대성이 철저히 구현된 건축물을 창조하기 위한 두 정을 험하게 벌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시에 철학적인 실천들을 보내주겠다는 사랑의 약속도 하여

구원을 찾으시여로동당시대와 더불어 걸이 및 날 전죽물, 주제성, 민족성, 특장성, 현대성이 철저히 구현된 건축물을 창조하기 위한 두 정을 험하게 벌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시에 철학적인 실천들을 보내주겠다는 사랑의 약속도 하여

구원을 찾으시여로동당시대와 더불어 걸이 및 날 전죽물, 주제성, 민족성, 특장성, 현대성이 철저히 구현된 건축물을 창조하기 위한 두 정을 험하게 벌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시에 철학적인 실천들을 보내주겠다는 사랑의 약속도 하여

구원을 찾으시여로동당시대와 더불어 걸이 및 날 전죽물, 주제성, 민족성, 특장성, 현대성이 철저히 구현된 건축물을 창조하기 위한 두 정을 험하게 벌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시에 철학적인 실천들을 보내주겠다는 사랑의 약속도 하여

구원을 찾으시여로동당시대와 더불어 걸이 및 날 전죽물, 주제성, 민족성, 특장성, 현대성이 철저히 구현된 건축물을 창조하기 위한 두 정을 험하게 벌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시에 철학적인 실천들을 보내주겠다는 사랑의 약속도 하여

구원을 찾으시여로동당시대와 더불어 걸이 및 날 전죽물, 주제성, 민족성, 특장성, 현대성이 철저히 구현된 건축물을 창조하기 위한 두 정을 험하게 벌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시에 철학적인 실천들을 보내주겠다는 사랑의 약속도 하여

구원을 찾으시여로동당시대와 더불어 걸이 및 날 전죽물, 주제성, 민족성, 특장성, 현대성이 철저히 구현된 건축물을 창조하기 위한 두 정을 험하게 벌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시에 철학적인 실천들을 보내주겠다는 사랑의 약속도 하여

구원을 찾으시여로동당시대와 더불어 걸이 및 날 전죽물, 주제성, 민족성, 특장성, 현대성이 철저히 구현된 건축물을 창조하기 위한 두 정을 험하게 벌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시에 철학적인 실천들을 보내주겠다는 사랑의 약속도 하여

## 자주권수호의 빛나는 역사를 창조하시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를 우리 당의 최고수호위에 높이 달을  
어보신 역사의 그날로부터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역사에  
물문자로 아로새겨진 4월 1일.  
이 날을 맞으며 우리 일민만이 아닌  
온 겨레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흔들 수하고 조국의 통일을 이  
룩하기 위해 대원 헌신의 자욱  
자속을 아로새겨 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同志의 물류의 혁명활동  
로장을 감회깊이 불어기려보면서 다함  
없는 홍보의 정에 휘어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깜히시였다.

『김정은동지가 있어 우리 혁명,  
우리의 사회주의는 끄떡없으며  
우리 조국의 미래는 끊없이 밝고  
창창합니다!』

흘러간 5년을 끌어가면서 홍보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선위인상은 크  
나른 적성속에 새겨져 있는 우리  
인민이다. 얼마나 준엄한 날이 이 때  
에 흘렀던가!

원쑤들은 『제재봉파』와 뛰어드는  
첫나방을 물어대면서 자주의 성세,  
사회주의 보루인 우리 공화국을 암에  
비벼려고 피를 물고 날뛰었다. 절대  
미분의 경제체제와 사상 최대의 군  
사적압박을 가하면서 우리를 끌고서  
거론하고 탈드는 미국을 비롯한 적  
대세력들의 핵통은 그야말로 필사적  
이었다.

하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천결방검  
의 세세를 이루고 일침과 함께 힘, 자  
력사강의 위력을으로 원쑤들의 악랄한  
반공화국 암살작전들을 무자비하게 것  
부시며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

을 더욱 힘차게 다그쳤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그이는 강대한 조선의 힘이고 승리  
의 기치이다. 그이가 아니시었다면  
무법왕대 한 우주로 끌어들이고 치닫는  
우리 공화국의 국력을 대하여 그리

고 10년을 1년으로 주를 살으며 나  
날이 변모되는 내 조국의 눈부신 모  
습, 신인을 경탄시키는 비약과 번영  
의 천성에 대하여 어찌 생각이나  
할수 있으랴.

평도자의 신념은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결정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이어 자  
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를 더욱 높  
이 쑐여주시고 우리 조국을 온 세계  
가 부러워하는 세기의 상상봉우에 우  
뚝려세우시려는 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석의 신념이며 의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의 천선위인상은 그 어떤 천지로나  
에도 드높지 않는 이 억척불변의

신념을 지니고 선군혁명령도를 풀  
기자에게 이어지셨다. 그이께서는 나  
라와 민족의 자주권이며 국력인 군  
력을 더 우강화하기 위해 인민군부  
대들의 전투훈련을 현지에서 끌어들  
이 지도해 주시면서 장병들에게 일당  
백의 용맹을 기워주었으며 대결의

최전쟁인 판문점을 봉쇄해 주면서  
우리란 수령님들의 유훈을 말들이 조  
국의 자주적 통일을 반드시 이룩하길  
여전히 의지를 파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천지에서 다치면 어질  
것인 같은 일축죽입의 첨에 한 천세에  
가 조성되면서 준엄한 시각 최대 열정  
지역에 위치한 장제도방어대와 부도  
역 투지점에 대한 위치정보를 전달받고 출격하  
여 정밀포탄으로 둑어훈련을 벌였다.

호친왕들은 특별연설이 『북조선에 경고해주세요!』  
로 되었을것이라니 뛰어하고 죄미운 소리를

쥐웠다. 이것은 미 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경  
토중인 대조선정책안에서 우리의 해시설 등을 선  
제 타격하는 방안을 제외하기로 하였다고 너스레

를 떤것이 국제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세발간 거  
짓말에 불과하다는것을 똑똑히 실증해주고있다.

불의의 선제 타격은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나라  
들을 침략할 때마다 쓰는 상투적 수법이다. 대조  
선정책 시장적 실패로 끌미리를 알고 있는 미국은  
우리에 대한 선제 타격에 기대를 걸고있다. 실제로  
트럼프행정부는 핵전략부기로 조선도로 전  
개하는 시 간을 단축하고 종류도 다양화하는 방안  
을 검토하고있다.

특히 핵전략부기들을 운용해 조선반도와 그 주  
변수역에 들이밀고 북침해전쟁연습을 벌리고있  
다. 미국은 핵전군사연습을 위해 광범위에 배치된  
핵전략부기인 『B-1B』를 충동시키

고 핵잠수함 『볼트부스』호를 남조선항구에 들이  
밀면서 『F-35B』스텔스전투기들을 남조선상  
공에 무임으로 투입해버리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은 최근 조선반도에 들이  
미는 전략자산을 절묘에 따라 공개하고 있는데  
『불시에 전개되는 전략자산들이 늘어나고 있는  
후세는 미군작전의 변화되는 양상』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트럼프행정부가 조선의 『핵, 미사일 위협』  
을 구실로 전략무기를 공세적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경고하였다.

미국이 남조선과 그 주변에 끌어들이고 있는 무

울준비 완성으로 힘 있게 불더일으키  
신 그 승업한 모습은 최후승리에 대한  
신실심을 천만군민의 가슴마디에 더  
우 굳게 새겨주었다.

우리의 평도에 만 한발의 포탄이  
우리 공화국의 국력에 대하여 그리  
고 10년을 1년으로 주를 살으며 나  
날이 변모되는 내 조국의 눈부신 모  
습, 신인을 경탄시키는 비약과 번영  
의 천성에 대하여 어찌 생각이나  
할수 있으랴.

평도자의 신념은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결정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이어 자  
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를 더욱 높  
이 쑐여주시고 우리 조국을 온 세계  
가 부러워하는 세기의 상상봉우에 우  
뚝려세우시려는 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석의 신념이며 의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의 천선위인상은 그 어떤 천지로나  
에도 드높지 않는 이 억척불변의

신념을 지니고 선군혁명령도를 풀  
기자에게 이어지셨다. 그이께서는 나  
라와 민족의 자주권이며 국력인 군  
력을 더 우강화하기 위해 인민군부  
대들의 전투훈련을 현지에서 끌어들  
이 지도해 주시면서 장병들에게 일당  
백의 용맹을 기워주었으며 대결의

최전쟁인 판문점을 봉쇄해 주면서  
우리란 수령님들의 유훈을 말들이 조  
국의 자주적 통일을 반드시 이룩하길  
여전히 의지를 파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천지에서 다치면 어질  
것인 같은 일축죽입의 첨에 한 천세에  
가 조성되면서 준엄한 시각 최대 열정  
지역에 위치한 장제도방어대와 부도  
역 투지점에 대한 위치정보를 전달받고 출격하  
여 정밀포탄으로 둑어훈련을 벌였다.

호친왕들은 특별연설이 『북조선에 경고해주세요!』  
로 되었을것이라니 뛰어하고 죄미운 소리를

쥐웠다. 이것은 미 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경  
토중인 대조선정책안에서 우리의 해시설 등을 선  
제 타격하는 방안을 제외하기로 하였다고 너스레

를 떤것이 국제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세발간 거  
짓말에 불과하다는것을 똑똑히 실증해주고있다.

불의의 선제 타격은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나라  
들을 침략할 때마다 쓰는 상투적 수법이다. 대조  
선정책 시장적 실패로 끌미리를 알고 있는 미국은  
우리에 대한 선제 타격에 기대를 걸고있다. 실제로  
트럼프행정부는 핵전략부기로 조선도로 전  
개하는 시 간을 단축하고 종류도 다양화하는 방안  
을 검토하고있다.

특히 핵전략부기들을 운용해 조선반도와 그 주  
변수역에 들이밀고 북침해전쟁연습을 벌리고있  
다. 미국은 핵전군사연습을 위해 광범위에 배치된  
핵전략부기인 『B-1B』를 충동시키

고 핵잠수함 『볼트부스』호를 남조선항구에 들이  
밀면서 『F-35B』스텔스전투기들을 남조선상  
공에 무임으로 투입해버리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은 최근 조선반도에 들이  
미는 전략자산을 절묘에 따라 공개하고 있는데  
『불시에 전개되는 전략자산들이 늘어나고 있는  
후세는 미군작전의 변화되는 양상』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트럼프행정부가 조선의 『핵, 미사일 위협』  
을 구실로 전략무기를 공세적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경고하였다.

미국이 남조선과 그 주변에 끌어들이고 있는 무

울준비 완성으로 힘 있게 불더일으키  
신 그 승업한 모습은 최후승리에 대한  
신실심을 천만군민의 가슴마디에 더  
우 굳게 새겨주었다.

우리의 평도에 만 한발의 포탄이  
우리 공화국의 포탄이

되도록 땅에 치운다. 그리고 조선의 평도에  
만 한발의 포탄이 우리 공화국의 포탄이

되도록 땅에 치운다. 그리고 조선의 평도에  
만 한발의 포탄이 우리 공화국의 포탄이

되도록 땅에 치운다. 그리고 조선의 평도에  
만 한발의 포탄이 우리 공화국의 포탄이

되도록 땅에 치운다. 그리고 조선의 평도에  
만 한발의 포탄이 우리 공화국의 포탄이

되도록 땅에 치운다. 그리고 조선의 평도에  
만 한발의 포탄이 우리 공화국의 포탄이

되도록 땅에 치운다. 그리고 조선의 평도에  
만 한발의 포탄이 우리 공화국의 포탄이

되도록 땅에 치운다. 그리고 조선의 평도에  
만 한발의 포탄이 우리 공화국의 포탄이

되도록 땅에 치운다. 그리고 조선의 평도에  
만 한발의 포탄이 우리 공화국의 포탄이

되도록 땅에 치운다. 그리고 조선의 평도에  
만 한발의 포탄이 우리 공화국의 포탄이

되도록 땅에 치운다. 그리고 조선의 평도에  
만 한발의 포탄이 우리 공화국의 포탄이

되도록 땅에 치운다. 그리고 조선의 평도에  
만 한발의 포탄이 우리 공화국의 포탄이

되도록 땅에 치운다. 그리고 조선의 평도에  
만 한발의 포탄이 우리 공화국의 포탄이

되도록 땅에 치운다. 그리고 조선의 평도에  
만 한발의 포탄이 우리 공화국의 포탄이

되도록 땅에 치운다. 그리고 조선의 평도에  
만 한발의 포탄이 우리 공화국의 포탄이

되도록 땅에 치운다. 그리고 조선의 평도에  
만 한발의 포탄이 우리 공화국의 포탄이

되도록 땅에 치운다. 그리고 조선의 평도에  
만 한발의 포탄이 우리 공화국의 포탄이

되도록 땅에 치운다. 그리고 조선의 평도에  
만 한발의 포탄이 우리 공화국의 포탄이

되도록 땅에 치운다. 그리고 조선의 평도에  
만 한발의 포탄이 우리 공화국의 포탄이

되도록 땅에 치운다. 그리고 조선의 평도에  
만 한발의 포탄이 우리 공화국의 포탄이

되도록 땅에 치운다. 그리고 조선의 평도에  
만 한발의 포탄이 우리 공화국의 포탄이

되도록 땅에 치운다. 그리고 조선의 평도에  
만 한발의 포탄이 우리 공화국의 포탄이

되도록 땅에 치운다. 그리고 조선의 평도에  
만 한발의 포탄이 우리 공화국의 포탄이

되도록 땅에 치운다. 그리고 조선의 평도에  
만 한발의 포탄이 우리 공화국의 포탄이

되도록 땅에 치운다. 그리고 조선의 평도에  
만 한발의 포탄이 우리 공화국의 포탄이

되도록 땅에 치운다. 그리고 조선의 평도에  
만 한발의 포탄이 우리 공화국의 포탄이

되도록 땅에 치운다. 그리고 조선의 평도에  
만 한발의 포탄이 우리 공화국의 포탄이

되도록 땅에 치운다. 그리고 조선의 평도에  
만 한발의 포탄이 우리 공화국의 포탄이

되도록 땅에 치운다. 그리고 조선의 평도에  
만 한발의 포탄이 우리 공화국의 포탄이

되도록 땅에 치운다. 그리고 조선의 평도에  
만 한발의 포탄이 우리 공화국의 포탄이

되도록 땅에 치운다. 그리고 조선의 평도에  
만 한발의 포탄이 우리 공화국의 포탄이

되도록 땅에 치운다. 그리고 조선의 평도에  
만 한발의 포탄이 우리 공화국의 포탄이

되도록 땅에 치운다. 그리고 조선의 평도에  
만 한발의 포탄이 우리 공화국의 포탄이

되도록 땅에 치운다. 그리고 조선의 평도에  
만 한발의 포탄이 우리 공화국의 포탄이

되도록 땅에 치운다. 그리고 조선의 평도에  
만 한발의 포탄이 우리 공화국의 포탄이

되도록 땅에 치운다. 그리고 조선의 평도에  
만 한발의 포탄이 우리 공화국의 포탄이

되도록 땅에 치운다. 그리고 조선의 평도에  
만 한발의 포탄이 우리 공화국의 포탄이

되도록 땅에 치운다. 그리고 조선의 평도에  
만 한발의 포탄이 우리 공화국의 포탄이

되도록 땅에 치운다. 그리고 조선의 평도에  
만 한발의 포탄이 우리 공화국의 포탄이

되도록 땅에 치운다. 그리고 조선의 평도에  
만 한발의 포탄이 우리 공화국의 포탄이

되도록 땅에 치운다. 그리고 조선의 평도에  
만 한발의 포탄이 우리 공화국의 포탄이

되도록 땅에 치운다. 그리고 조선의 평도에  
만 한발의 포탄이 우리 공화국의 포탄이

되도록 땅에 치운다. 그리고 조선의 평도에  
만 한발의 포탄이 우리 공화국의 포탄이

되도록 땅에 치운다. 그리고 조선의 평도에  
만 한발의 포탄이 우리 공화국의 포탄이

되도록 땅에 치운다. 그리고 조선의 평도에  
만 한발의 포탄이 우리 공화국의 포탄이